

李荇의 유배시에 나타난 정서 양상

김은지(경남대)

<목 차>

- I. 서론
- II. 유배시에 나타나는 시적화자와 정서 양상
- III. 유배시의 정서 층위
- IV. 결론

<국문 초록>

본 연구는 李荇이 충주, 함안, 거제도에서 유배 생활을 하며 지은 유배시에 나타나는 시적 정서를 밝히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조선전기의 중앙집권체제는 중기로 접어들면서 서서히 붕괴되었고, 사대 사회가 일어나면서 혼란은 더욱 심해졌다. 이로 인하여 관직에 나아간 이들은 뜻을 펴기도 했고, 정치적으로 뜻을 잃어 유배를 당하기도 했다. 유배는 죄를 범한 자를 죽이지 않고 멀리 유배지로 보내어 終身토록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형벌인데, 이런 극적인 체험은 유배를 당한 인물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여기서 유배생활은 정치적 삶과 전원생활로 대표되던 당시의 삶에 빠질 수 없는 또 다른 삶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 李荇의 유배시를 대상으로 시에 나타난 정서와 정서의 변화양상을 살펴겠다.

李荇은 연산 10년(1504)에 일어난 갑자사화에 연루되어 유배 길에 올라 3

여 년 동안 충주와 함안을 거쳐 거제도도 유배지를 옮겨 배소되었다. 유배지를 옮길 때마다 충주에서는 《謫居錄》， 함안에서는 《南遷錄》， 거제도에서는 《海島錄》을 제목으로 詩稿로 남겼다. 유배시에 나타나는 정서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하여 기준으로 삼은 것은 현실을 바라보는 시적화자의 태도이다. 유배 상황에 대한 李荇의 시적 발화 과정을 현실에 대한 갈등 표출(외면화/내면화)이라고 보고, 각기 다른 상황에서 쓰인 시를 살피기 위하여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행의 유배시는 분류한 기준에 따라 정서 층위를 부정적 정서와 긍정적 정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유배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현실을 이야기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시에서 현실에서의 갈등을 어떻게 나타내느냐로 정서의 양상을 살필 수 있으며, 현실과의 갈등 또는 내적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謫居錄》의 초창기에 나타나는 좌절과 절망하는 自嘆의 정서는 《南遷錄》에서는 스스로를 위안하는 自慰의 정서로 나타남으로써 긍정적 정서로 나아가려한다. 이러한 현상은 《海島錄》에서의 유배 온 여러 인물들과 교류를 통하여 그가 느낀 좌절과 고독감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오히려 스스로를 되돌아 볼 기회를 찾은 듯 보인다. 그리하여 自照의 정서로 가닥을 잡았다. 이행은 자신의 내면에 관심을 가지고, 혼란한 현실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태도를 형성해 갔던 것이다. 현실의 불만을 적극적으로 내면화한다는 것은 시적화자가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은 시적화자이자 작가가 현실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이행의 시세계와 문학이 가지는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믿고 여기에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주제어 : 유배, 유배시, 정치적 삶, 전원생활, 용재집, 적거록, 남천록, 해도록, 시적발화, 내적갈등, 부정적 정서, 긍정적 정서, 자만, 자위, 자조

I. 서론

본 연구는 李荇이 유배 생활을 하며 지은 시에 나타나는 정서를 밝히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李荇이 유배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유배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감정들을 어떻게 표출하고 있는지 그 정서들에 대하여 논의하고, 변화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시인은 체험을 통한 정서를 언어로 나타내는데, 문학에 있어서 정서는 일차적인 감정이 상상력의 세계를 지나면서 어느 정도 정제되고 표현의 과정을 거쳐서 나타난다.¹⁾ 이처럼 체험으로 생성되는 문학은 시인에게 있어서는 ‘사실적인 체험(real Erlebnis)이면서 개인적인 체험(persönlich Erlebnis)이다.’²⁾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정치적인 이유에서 비롯되지만, 유배는 사실적이면서 개인적인 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

容齋 李荇(1478~1534)이 살았던 연산·중종 때는 四大士禍의 대부분이 일어난 만큼 극심한 혼란기였다. 훈구파와 사림파가 대립하면서 무오·갑자·기묘사화가 일어났고, 이행은 여러 차례의 유배생활과 벼슬살이를 거치면서 끝내 유배지에서 생을 마쳤다. 굴곡 많은 그의 생애는 詩 약 2,000여 수와 文을 통하여 그 기록이 잘 나타나 있다.³⁾ 이행의 시 가운데서도 유배지에서 쓴 유배시를 살펴보면 《謫居錄》 37편, 《南遷錄》 79편, 《海島錄》 119편으로 모두 235편이다. 적지 않은 수임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에는 유배지에서 쓴 시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행의 생애와 시세계 전반에 대한 검토⁴⁾는 여러 편 이루어졌으나 유배에 관한 부분만이 중점적으로 연구

1) 김대행, 『高麗詩歌의 情緒』, 통문관, 1985, p. 57.

2) 디터 람핑, 『서정시: 이론과 역사-현대 독일시를 중심으로』, 문학과지성사, 1994, p. 164.

3) 『容齋集』에는 1권부터 8권까지 詩가 실려 있고, 9권 10권은 文이 그리고 외집에는 賦가 실려 있다. 1,852수의 시가 전하는데 1권부터 3권까지는 절구, 율시, 고시 등이 시체별로 정리되어 있고, 나머지 4권부터 8권까지는 창작시기별로 자신이 직접 쓰고 모은 11개의 詩稿가 전한다.

4) 김기림, 「용재 이행의 한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86.

이창희, 「용재이행의 한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1987.

신향림, 「이행의 시세계」,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1994.

이창희, 「용재 이행의 한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1998.

된 논문은 찾기 힘들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李荇 시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그의 삶이 나타난 시 중에서도 고통과 좌절이 그대로 묻어나는 유배시절의 시를 대상으로 삼았다. 이행의 시를 삶이 기록이라는 측면에서 보아도 그가 엮은 詩稿는 더 할 수 없이 유배시 연구에 있어 좋은 자료가 된다. 詩가 작가의 체험에서 우러나온 경험의 산물이라고 본다면 그의 생애만큼이나 다양한 시가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그의 유배시가 현실의 좌절과 고통을 어떻게 수용하고, 형상화하는지 그 정서 층위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다.

II. 유배시에 나타나는 시적화자와 정서 양상

일반적으로 정서는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여러 가지 감정들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⁵⁾ 사전적인 의미로 정서(emotion)는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 또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기분이나 분위기”⁶⁾를 뜻한다. 비교적 강하게 단시간 동안 계속되는 감정(感情)과 비교적 약하고 장시간 계속되는 정취(情趣)와 구분하여 쓰인다. 정서는 마음이 움직이고 감동된다는 점에서 정동(情動)이라고도 한다. 희로애락·애증·공포·쾌고(快苦) 등이 정서이며, 의식적으로는 강한 감정이 중심이 되며, 신체적으로는 내장적(內臟的)인 생활기능의 변화를 수반하는 경우로 달리 설명되기도 한다.⁷⁾ 시는 시인의 주관적인 정서가 이론 융화의 인식이다.⁸⁾ 여기서 주관적 정서는 시인의 시적체험을 통한 형상화라 할 수 있다. 외부 자극이나 스트레스를 불러오는 상황에 대한 이로움/궁정의 평가는 기쁨, 유쾌함, 사랑, 만

김혜숙, 「이행의 생애와 시-이행시의 주류적 情操와 情感의 흐름-」, 『한국한시작가연구』 4, 태학사, 1999.

5) 김경희, 『정서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5.

6) 국립국어연구원, 『표준어국어대사전』, 1999, (주)두산동아, p. 5440.

7) 동아출판사 백과사전부, 『동아세계대백과사전』 24권, 동아출판사, 1982.

8) 김열규, 『시적 체험과 그 형상』, 대도출판사, 1984, p. 215.

죽, 해방감 등의 긍정적 정서를 불러오고, 해로움/부정의 평가는 분노, 죄책, 불안, 부러움, 질투, 혐오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가져온다고 보았다.⁹⁾

문학에 있어서도 많은 논의가 있어 온 정서의 본질은 모순되는 충동의 갈등이며, 그것을 조화롭게 해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감정이 감동 상태의 일방적인 특성을 지님에 비해 정서는 그것을 통제하고 질서를 부여하는 지적 작용을 지닌다. 이러한 정서를 심리적 기체의 방향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범주화하고 있다.

적극적 정서: 愛, 崇敬, 稱讚, 歡喜, 憧憬, 希望

소극적 정서: 憎, 憤怒, 恐怖, 悲哀, 憂愁, 落魄, 絕望

위의 분류는 유사항목들로 범주화되어 있다. 적극적 정서와 소극적 정서에 대한 근거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정서가 모순되는 충동의 갈등을 조화해 나가는 과정으로 보고, 그 조화가 대상에 대해 +방향(긍정적 정서)으로 이루어지는가, -방향(부정적 정서)으로 이루어지는가로 분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행의 유배시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장소변화에 따른 정서의 변화유형이다. 유배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세 차례의 장소 이동이 있었고, 점점 서울에서 멀어졌다. 유배 상황에 대한 시인의 시적 발화과정을 현실에 대한 갈등표출(외현화/내면화)이라고 보고, 각기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쓰인 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¹⁰⁾

유배시에 나타나는 정서를 분류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은 현실을 바라보는 시적화자의 태도이다. 유배지에서 유배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9) Folkman, S. and Lazarus, R. S. 「Stress Process and Depressive Symptomatolog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986, pp. 107~113.

10) “모든 시적 발화는 구조적으로 볼 때 최소한의 어떤 공간적 상황에서의 어떤 화자의 발언을 표현해 주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면 -구조는 그 어떤 발화가 하나의 혹은 최소한 두개의 발언들로서 구성되어 있는지 아닌지, 또 이 발언들이 하나의 동일한, 아니면 최소한 두개의 서로 다른 공간적 상황 속에서 향해진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 발언들이 하나의, 혹은 최소한 둘의 서로 다른 화자들로부터 유래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구분될 수 있다.”

디이터 램평, 「서정시:이론과 역사-현대 독일시를 중심으로」, 문학과지성사, 1994, p. 144.

현실을 이야기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배시에 나타나는 정서를 현실에 대한 내적갈등의 표출로 보고 정서 변화의 양상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 첫째, 유배현실에 대한 불만을 적극적으로 외현화하는 유형이다.
- 둘째, 유배현실에 대한 불만을 소극적으로 외현화하는 유형이다.
- 셋째, 유배현실에 대한 불만을 소극적으로 내면화하는 유형이다.
- 넷째, 유배현실에 대한 불만을 적극적으로 내면화하는 유형이다.

위와 같은 유형으로 나누었을 때, 이행의 시에 나타나는 정서양상은 현실에 대한 갈등을 내면화하여 나타내고 있다. 유배시를 대상으로 시에 나타나는 소재와 주제별로 술회, 교유, 자연생활로 층위를 나누어 보았다.¹¹⁾ 그리하여 《謫居錄》, 《南遷錄》, 《海島錄》을 살펴본 결과 충주 유배지에서 지은 《謫居錄》에서는 自嘆의 정서를, 함안 유배지에서 지은 《南遷錄》에는 자위(自慰)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으며, 거제도 유배지에서 지은 《海島錄》에는 자조(自照)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자탄(自嘆), 자위(自慰), 자조(自照)의 정서들은 시인이 현실에서 가지는 불만을 외현화에서 내면화 해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유배시에 나타나는 이러한 정서에 대해 논의를 진행시키려 한다.

Ⅲ. 유배시의 정서 층위

1. 충주유배시 : 《謫居錄》과 自嘆의 정서

11) 유배시에 나타나는 주제별, 소재별 유형으로 술회, 교유, 자연생활이라고 나누었다. 먼저 유배시의 성격상 자신의 내면이나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술회로 나타내었고, 간혹 등장하는 교유인이 유배지의 생활에 있어서 이별했거나 재회하는 경우 시에 잘 등장하며, 생활에 있어서 그리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교유를 정서 층위로 나누어보았다. 그리고 자연생활의 층위는 아직 논의 필요한 단계이지만, 유배지에서의 자연을 노래한 경우이다. 하지만 이것은 유배지의 생활과 그곳 사람들의 생활을 나타내기도 한 까닭에 자연생활이라 이름 붙였다. 자연을 노래한 몇몇 시에서는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풍경이나 독특한 환경을 나타낸 것도 있다.

용재 이행은 연산 10년(1504)에 일어난 갑자사화로 인하여 유배 길에 오르게 된다.¹²⁾ 이행은 충주로 還配될 당시¹³⁾ 《謫居錄》에 37편의 시를 엮어 당시 정서를 나타내었다. 《謫居錄》에 나타나는 시를 술회, 교유, 자연생활 등의 층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술회에 해당하는 시가 무려 25편으로 유배당시의 고통스런 심정과 혼란한 상태에 놓여있던 정서가 주조를 이룬다. 나머지 자연생활을 노래한 시가 8편으로 대부분 농사짓는 백성의 삶과 용재 자신의 일상에 대하여 읊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교유인에게 보내거나 답하는 시가 4편 있다.

《謫居錄》의 처음에 나오는 竹山과 無極驛에서 지은 각 1편씩을 제외하면 모두 충주의 유배지에서 지은 것들이다. 유배초기에 나타나는 정신적인 갈등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으며 다른 詩稿보다 술회한 내용이 많다. 여기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시들은 자신의 뜻이 꺾인 데에 대한 좌절과 분노 혹은 두고 온 이들이나 친지, 친우에 대한 단편적이지만 애뜻한 감정이 흐르고 있다.

눈여겨 볼만한 것은 유배를 가는 과정이 시로 나타나 있다는 것이다. 《謫居錄》의 첫 수부터 세 번째 수 <죽산(竹山)으로 가는 길에 비를 만나>, <무극(無極)의 역졸이 나에게 말하기를...>, <충주에 들어가서>로 유배를 가는 동안과 도착해서의 심정을 토로한 작품들이다.¹⁴⁾

오랜 가뭄에 삼농이 병들었는데	旱久三農病
아침에 오는 소나기 어지럽구나	朝來白雨紛
정녕 멀리서 온 손님을 재촉하니	丁寧催遠客
살짝 오른 취기가 쉬이 엄습하네	容易襲微醺
풍년의 상이 이미 이루어졌으니	已作豐穰像
부지런히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쉬다고 말하지 말라	休言跋涉勤
어찌 견디랴 병든 두 눈으로	那堪雙病眼
북으로 돌아가는 구름 보내며 단념하는 것을	送斷北歸雲

<竹山路上過雨>¹⁵⁾

12) 《謫居錄》 弘治 甲子 夏四月 謫忠州以後作

13) 홍순석, 「용재 이행 시의 한 考察」, 『한문논집』 4, 단국대학교 한문학회, 1986.

14) 『容齋集』 卷五 <謫居錄>, <竹山路上過雨>, <無極驛卒 語余曰 前五日 又有一年少官 謫赴南裔 細認之 乃五仲說也 感歎之 作辭不隱情 時四月十一日也 三首>, <入忠州> p. 22.

이 시에서는 유배 떠나는 길을 재촉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어찌 견디라 병든 두 눈으로/ 북으로 돌아가는 구름 보내며 단념하는 것을”에서는 서울 방향인 북쪽으로 가는 길에서 애써 바라보는 것을 단념하려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 조선시대의 사대부들은 정치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이런 그들의 삶에 있어서 유배도 정치적인 삶의 일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사대부들에게 유배 역시 정치생활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지만, 처음 유배에 오르는 길에서 자신의 뜻이 꺾인 데 대한 울분의 정서도 나타난다.

<후회를 기록하다(記悔)>라는 시에서는 “평생에 잘못하여 괜히 선비가 됐나니 진작에 농부가 못 된 것을 후회하노라(平生失計漫爲儒 悔不早作農家夫)”라고까지 하였다. 사대부로 태어나 관직에 오르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던 때 평생의 잘못으로 선비가 되었다하니 어떠한 심정으로 시를 지었는지 알 수 있다. 한편으로는 관직생활에 대한 기대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깨닫게 된 좌절과 울분은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데 대한 서러움을 낳게 된다. 이런 감정 등은 친지나 친우에 대한 더욱 애뜻한 정서로 나타난다.

내 벗이 지금 해운 가에 있기에
서신을 부치려 해도 부칠 길이 없구나

故人今在海雲邊
欲寄音書無雁傳
<有懷 二首>¹⁶⁾

위의 시는 동래로 유배가 있는 읍취헌 박은을 생각하며 쓴 시로 동래 근처에 해운대가 있기에 “해운 가에 있기에”라고 표현 한 것이다. 이행은 읍취헌 박은과는 아주 절친한 사이로 동리에서 같이 컸다. 두 친우의 처지가 비슷하고 또 처량하여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잘 나타난다.

멀리서 두 아들을 생각하노니
너희들 미목이 각기 청수했지

遠憶兩兒子
眉目各清揚

15) 『容齋集』 卷五 <謫居錄>

16) 『容齋集』 卷五 <謫居錄>, <有懷 二首>

작은 아이는 젖을 떼지 못했고
 큰 녀석은 아직 옷을 이기지 못했지
 너희는 지금 어미 품안에 있어도
 나의 마음 오히려 잊지 못하는데
 부모님께서 나를 생각하는 마음
 그 절박함에 어찌 비교되리

小者未離乳
 大者不勝裳
 汝今在母抱
 我懷尙難忘
 爺孃念我心
 迫切安可當
 <遠憶>¹⁷⁾

위의 <멀리서 생각하다(遠憶)>의 시에서는 자식과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자세하게 나타나 있다. 기약 없는 유배지의 생활에서 이별한 가족과의 정을 그리는 일은 기댔 곳 없는 이곳 생활의 외로움과 고독함이 잘 나타나 있다.

《謫居錄》에 나타나는 自嘆의 정서는 초기 유배시에 잘 드러나는 것처럼 관직이나 서울 그리고 가족 친지들과 떨어져 형벌을 받게 되었다는 억울함과 좌절의 정서가 나타나며, 낮은 곳에서의 생활에 대한 울분과 그리움의 정서가 드러난다. 이것은 이행이 유배 현실에 대한 불만을 적극적으로 외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함안 유배시 : 《南遷錄》과 自慰의 정서

《南遷錄》은 이행이 28세가 되던 연산11년(1505) 정월에 함안으로 配所를 옮긴 때부터 다음해 정월, 거제도로 다시 옮겨질 때까지 1년 동안에 지어진 작품 80편을 엮은 것이다. 이 시기는 이행의 유배기에 있어서도 가장 힘든 시기였다. 충주에 유배를 가 있으면서도 지난날 懷陵의 추봉 및 遷墓에 관한 것을 논계한 것이 화근이 되어 국문을 당하는가 하면, 사형에 처해질 위기에까지 이른다. 겨우 사형에서 감면되어 함안으로 축출되었는데, 이때 노비의

17) 『容齋集』 卷五 《謫居錄》, <遠憶>

신분으로 전락되었다. 앞의 《謫居錄》이 엮어질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이행의 유배시는 더욱 절박한 정서를 보이며, 심지어는 죽음에 대한 생각도 나타나고 있다. 《南遷錄》에 수록된 시는 모두 79편이고 1편은 발이다. 술회의 내용이 54편으로 가장 많았고, 자연을 노래한 시가 20편이었다. 이 시중에는 백성을 바라보는 이행의 시선을 느끼게 하는 작품들이 다수 있었다. 그리고 교유인물과 관련한 시가 5편 있다. 다음의 시는 이행의 시중에서 정서의 변화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태부는 복조부를 읊었고	太傅鵬鳥賦
삼려대부는 어부사를 읊었네	三閭漁父詞
옛 현인도 화를 면하지 못했는데	昔賢猶不免
지금 내가 홀로 의아해하랴	今我獨奚疑
전석은 비록 만나지 못했지만	前席雖云晚
행음하며 스스로 슬퍼하진 말자	行吟莫自悲
당당한 저 한나라의 왕업은	堂堂漢家業
조금도 이지러질 턱이 없으니	不肯少微虧
	<自慰> ¹⁸⁾

이 시는 <자위(自慰)>라는 제목답게 스스로를 위안하려는 시인의 의도가 느껴진다. 여기에서도 《謫居錄》에서처럼 “삼려대부” 즉, 굴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임금과는 비록 의기투합하지 못하였으나, 굴원처럼 초췌하게 거닐며 시를 읊지 말고 슬퍼하지 말자고 이야기 하고 있다. 스스로 위안을 삼는다는 것은 첫 유배지에서 느끼던 불만이나 울분 등을 외현화하여 형상화하는 방법에서 벗어나 내면화하는 과정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생에 날 알아주는 이 드무니	平生知我寡
사해 이 모공(뿔) 한 분뿐이로세	四海一毛公
그대 짝하여 외진 변방에 와서	作伴來荒裔
서로 의지하여 외로움을 달래네	相水須陋窮
	<秃筆> ¹⁹⁾

18) 『容齋集』 卷五 《謫居錄》, <自慰>

이 시는 <秃筆>이라는 시로 붓을 의인화하여 세상에 자신을 알아주는 이 없음을 노래하고 있다. 자신을 알아주던 인물들을 떠나보내고 자신도 유배지로 왔기 때문에 붓과 의지하며 외로움을 달랜다는 내용으로 붓들에 대한 그리움과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데 대한 쓸쓸함의 정서도 나타난다.

어젯밤 달빛이 가득했는데	昨夜月光滿
오늘밤에는 이지러졌구나	今夜月光缺
하늘의 도는 오히려 이와 같은데	天道尙乃爾
사람의 일 어찌 말할 필요 있으랴	人事安足說
달은 이지러졌다가 다시 차오르니	月缺行且盈
사람의 곤궁함도 이와 다르지 않다네	人窮情不別
어지러운 경박한 무리들은	紛紛輕薄兒
아침저녁으로 차가워졌다가 뜨거워지네	朝暮有冷熱
	<感懷> ²⁰⁾

이 시에는 경박한 무리들이 아침저녁으로 태도를 바꾸는데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달빛이 등글었다가 다시 이지러지는 것을 반복하는 것처럼 인간의 삶도 그렇지만, 정치적 권력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자연은 관찰로 그 변화를 알 수 있지만 인간의 삶은 역사를 통해서 잘 나타난다.

백년에 아직 반도 못 살았는데	百年今未半
나만큼 우환을 겪은 이도 없으리	憂患莫五如
몸은 이미 미천한 관노가 됐어도	身已隨厮養
마음은 아직 관직 임명 두려워라	心猶畏簡書
인생살이 속절없이 스스로 괴롭나니	有生空白苦
만족할 줄 아는데 무엇을 더 구하라	知足敢求餘
벽에 기댄 채 애오라지 꿈을 꾸니	倚壁聊成夢
태허공을 벗어나 한가로이 노니누나	浮遊出太虛
	<題宜寧家壁上> ²¹⁾

19) 『容齋集』 卷五 《南遷錄》，<秃筆>

20) 『容齋集』 卷五 《南遷錄》，<感懷>

위의 시는 <의령벽에 적다(題宜寧家壁上) 5수> 가운데 마지막 수이다. 시에 나타나듯이 관노의 신분으로 격하되었지만 <<謫居錄>>에 나타난 시에 비해 좀 더 초탈한 기운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미천한 관노가 되고 죽음을 눈앞에 둔 순간이 있었지만, 오히려 이러한 절박한 상황이 오히려 그에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준 것이다. 다음의 시는 이행에게 고문하라는 어명이 떨어진 것을 듣고 지은 8수 중에서 첫 수와 마지막 수이다.

인생살이 기껏해야 백년이고
누구나 한번은 죽으니
한번 죽음을 결정하기 어려워
그래서 이 지경에 이르렀구나
분분히 내린 눈 위에 서리까지
큰 걱정 언제나 그칠까
나의 마음은 참으로 태연하니
아등바등 앓고 운명에 맡기노라

-중략-

입이 있다고 경전을 말하지 말고
먼저 나뭇꾼의 노래나 부르세
손이 있다고 글을 배우지 말고
먼저 어부의 도롱이나 알게나
아침이면 깊은 산에서 나무하고
저녁에는 물위에서 낚시 하는구나
이렇게 흔쾌히 한 세상을 보내노니
이 즐거움이 응당 어떠한가

<聞又有拷掠之命知吾必死也書八便以自寬後之覽者亦 三日將哀之云>²²⁾

人皆曰

愚智等一死
一死亦難決
所以至於此
紛紛雪上霜
大患何時已
我心良泰然
惟命不可俟

-中略-

有口莫談經
且誦樵夫歌
有手莫學書
且識漁夫蓑
朝去採雲谷
暮返釣煙波
熙熙以卒歲
此樂當如何

유배지에서 그것도 28세라는 젊은 나이에 죽음을 앞두고 쓴 시에는 약간의 원망조와 함께 스스로를 위안하려는 자위(自慰)의 정서가 엿보인다. 이러한

21) 『容齋集』 卷五 <<謫居錄>>, <題宜寧家壁上>

22) 『容齋集』 卷五 <<謫居錄>>, <聞又有拷掠之命知吾必死也書八便以自寬後之覽者亦 三日將哀之云>

정서는 현실의 불만을 소극적으로나마 내면화하고 있다.

3. 거제도 유배시 : 《海島錄》과 自照의 정서

《南遷錄》 뒷부분에 나타나 있듯이 이행은 연산 11년(1505)에 익명서 사건에 연루되어 옥에 갇히고 국문을 당한다. 다음해(1506) 정월에 거제도로 유배되었다. 2월에야 高節嶺 기슭에 도착했는데, 여기서는 圍籬安置되고 나서 양치는 일을 맡게 된다. 중중반정이 일어나는 9월까지 약 7개월 동안을 이러한 생활을 한 것이다. 《海島錄》은 이 시기에 지은 119편의 시를 엮어 만든 것이다. 지금까지 살핀 《謫居錄》과 《南遷錄》에 비해 수십 편의 시가 더 실려 있다. 다른 유배지 생활에 비해서 시기가 그렇게 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편이 많은 가장 큰 이유는 거제도에서 만나게 된 친우들과의 교류 덕분이다. 그의 師友인 최숙생과 김세필, 홍언충 등이 같은 죄로 근처로 유배된 까닭에, 서로를 위로하며 화답한 시가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충주에서 같이 유배생활을 한 최숙생과 화답시가 많다.

《海島錄》에서는 앞에서 나타나던 울분과 좌절의 감정들을 어느 정도 해소한 까닭에 지금까지의 삶의 돌아보고 있으므로 자조(自照)의 정서로 가담을 잡았다.

하삭의 선현들은 고풍이 있었나니	河朔先賢有古風
오늘 또 소요하며 일곱 사람 모였어라	逍遙今復七人同
작은 못 그림자 맑아 푸른 산빛 적시고	小塘影澈涵山翠
늙은 나무 그늘 성글어 붉은 햇살 새는구나	老木陰疏漏日紅
통음하며 광가를 불러 세모에 답하노니	痛飲狂歌酬歲晚
백발로 청안의 만남 처지야 곤궁하건 말건	白頭青眼信途窮
밤길 돌아갈 제 불 없다 걱정일랑 마시라	莫虞夜徑歸無火
수레바퀴 같은 달이 바다 동쪽에 떠오르리	海月如輪欲上東

<十五日 與子伯 子真 公頌 大曜 君美 公佐 逍遙洞會飲 有作>²³⁾

위의 시는 자백(子伯), 자진(子眞), 공석(公碩), 대요(大曜), 군미(君美), 공좌(公佐)와 더불어 소요동에서 술을 마시며 지은 것이다. 다른 유배지에서의 생활과 달리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고통과 괴로움을 함께 나누고 있다.

이행의 생애에서 가장 깊게 사귀었고, 문학적인 성향이 비슷한 인물로 함께 해동 강서시파인 박은(朴聞)(1479~1504)이 있다. 용재가 쓴 박은의 묘갈명에 '같은 동리에 살며 같이 배우고 뜻도 같이 하였으며, 벼슬과 죄까지도 같이하여 조석으로 서로 같이하지 않은 것이 없어 평생 옥되게도 지기라 여겼다'²⁴⁾고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 이행이 그의 시를 모아 『읍취현유고』를 냈는데, 그의 시는 주로 파직된 23세부터 아내가 죽기 전까지의 것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현실세계에서 벗어나 정신적으로 평화로울 수 있는 현실 초극의 노력과 주변인물의 죽음을 노래한 것들이다.

찬 비는 국화꽃을 피지 못하게 하고	寒雨不宣菊
작은 술잔은 사람 가까이 할 줄 아네	小尊知近人
문을 닫으니 붉은 잎은 지고	閉門紅葉落
숫구를 얻으니 흰머리 새롭네	得句白頭新
기뻐서 정든 친우 생각하지만	歡憶情親友
적막한 새벽에 수심만 더해가네	愁添寂寞晨
언제일까 기쁜 눈빛으로 마주하여	何當青眼對
한바탕 웃으며 만날 따뜻한 봄날은	一笑見陽春

이 시는 박은이 용재를 그리워하며 지은 시를 서로 논하지 못하는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 작품이다. 지어진 시기는 분명하지 않으나 『읍취현유고』에 실려 있는 전후의 작품들을 통해서 추측해볼 때 박은이 동래에 유배가기 직전쯤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박은과 이행은 매일 만나서 시를 주고받았는데, 서로 떨어져 함께 있지 못하고 시를 주고받을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더욱 커지는 그리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불확실한 앞날이지만 예전처럼

23) 『容齋集』 卷七, <十五日 與子伯 子眞 公碩 大曜 君美 公佐 逍遙洞會飲 有作>

24) 『容齋集』, <朴君仲說墓地銘>, p. 798.

술잔을 기울이며 어울려 지낼 수 있는 날을 기대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드러나 있다.

용재도 <내 벗이 지금 해운 가에 있기에 서신을 부치려 해도 부칠 길이 없구나(故人今在海雲邊 欲寄音書無雁傳)>의 시에 동래로 유배가 있는 읍취헌 박은을 생각하며 쓴 시가 있다. 서로 유배지에서 소식을 전하려 하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안타까워하는 심정이 잘 나타나 있다.

하늘이 사문을 없애려 하는지	天欲斯文喪
시대는 마치 잔취장 같네	時如殄瘁章
백명으로 한 사람과 바꾸지 못하니	百身人莫贖
오랫동안 밤이 다시 길어지네	萬古夜還長
문장은 정신의 나머지요	翰墨餘三昧
풍류는 한 세상 다했다네	風流盡一揚
슬픔을 참으며 호해의 술잔을 들고서	忍將湖海酒
쓸쓸히 국화 옆에서 잔을 드네	空酌菊花傍

이 시는 『읍취헌유고』를 편찬한 다음에 지은 작품이다. 용재는 읍취헌 박은이 효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심한 충격과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시를 짓지 못하였다고 한다. 박은은 천재적인 재능과 호방한 성품은 백 명과도 바꿀 수 없다고 하였으니 용재가 읍취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에 잘 나타나고 있다. 사람은 사라지고 그가 남긴 글과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서 서글픔을 드러내고 있다.

정희량(鄭希良, 1469(예종 1)~?)은 본관이 해주(海州)이고, 자는 순부(淳夫), 호는 허암(虛庵)이다. 김종직(金宗直)의 문인으로 1492년(성종 23)생원시에 장원으로 합격하였으나, 성종이 죽자 태학생(太學生)·재지유생(在地儒生)과 더불어 올린 소가 문체되어 해주에 유배되기도 하였다. 1495년(연산군 1)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승문원의 권지부정자에 임용되었다. 이듬해 김전(金詮)·신용개(申用溉)·김일손(金駟孫) 등과 함께 사가독서(賜暇讀書)될 정도로 문명이 있었다. 1497년 예문관대교에 보직되어 소를 올린 바 있다.

다음해 선무랑·행예문관봉교로서 《성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무오 사화 때에는 사초문제(史草問題)로 윤필상(尹弼商) 등에 의하여 신용개·김전 등과 함께 탄핵을 받았는데, 난언(亂言)을 알고도 고하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장(杖)100, 유(流) 3,000리의 처벌을 받고 의주에 유배되었다가 1500년 5월 김해로 이배되었다.

이듬해 유배에서 풀려나 직첩을 돌려받았으나 대간·홍문관직에는 서용될 수 없게 되었다. 그해 어머니가 죽자 고양에서 수분(守墳)하다가, 산책을 나간 뒤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정희량은 용재 이행보다 10여 세가 위이지만 벼하며 가까이 지낸 인물이다.

시가 이루어져 적선인에게 보내려 하니	詩成欲寄謫仙人
나와는 평소 뜻이 가장 친했네	許我平生意最親
한번 하늘가로 오면서 소식이 끊어져	一別天涯消息斷
나 홀로 서울의 봄날을 저버리고 있구나	獨憐孤負禁城春

이 시는 정희량이 戊午土禍 때 평안도 압록강 아래의 용만에 유배가 있을 때 지은 작품이다. 정희량의 집은 남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용재와는 어려서부터 같이 살았다고 한다.²⁵⁾ 용재는 정희량이 유배가 있는 동안에 명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왔는데 용만에 가까울수록 정희량을 생각하는 시가 많다.

홍연충(洪彦忠, 1473(성종 4)~1508(중종 3))은 본관은 부계(缶溪)이고 자는 직경(直頃), 호는 우암(寓菴)이다. 1495년(연산군 1) 사마시에 합격하고, 그해에 또다시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1498년 사가독서(賜暇讀書)하고, 질정관(質正官)·부수찬·이조좌랑을 역임한 뒤 병으로 사임하였다. 이어 1503년 수찬으로 복직하여 교리가 되고, 그해에 정조사(正朝使)의 서장관(書狀官)이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다.

이듬해 갑자사화가 일어나자 글을 올려 임금을 간하다가 노여움을 사서 문외출송(門外黜送)되었다가 다시 진안에 유배되었다. 이어 아버지 귀달이 경

25) 용재가 쓴 <權公墓碑銘>에 언급되어 있다.

원으로 유배될 적에 또다시 해도(海島)로 이배되었다. 그가 유배의 명을 받았을 때 집안사람들이 몸을 피할 것을 권하였으나 왕명을 어길 수 없다 하여 조용히 길을 떠났다.

해도에 유배 중에 종종반정이 일어나 풀려났다. 종종이 불려 직강(直講)을 제수하였으나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시와 술로 생을 보냈다. 그는 천성이 단솔(端率)하고 재기가 있어 어릴 때에 이미 학문에 깊이 통달하였다. 문장에 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글씨에도 뛰어났으며, 특히 예서(隸書)를 잘 썼다. 그는 문장으로 정순부(鄭淳夫)·이택지(李擇之)·박중열(朴仲說) 등과 함께 당대의 사걸(四傑)이라 불렸다.

海邊天遠近	바닷가의 하늘은 가깝고도 멀며
客裏月虧盈	객지의 달은 이지러졌다 찼다 하네
人事豈難識	사람 일을 어찌 알기 어려우랴
吾生本自輕	우리 삶은 본디 가볍기만 한 것음
思鄉更無益	고향을 생각해 보지만 무익하고
白髮只催生	흰머리만 생애를 재촉하네
隴上千年栢	언덕 위에 천 년의 잣나무 있으니
還須日對評	모름지기 날마다 마주하여 품평하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거제도라는 섬에 유배를 와서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젊은 관료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봉건시대에 임금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상황과 친우 및 여러 관료들이 목숨을 잃어가는 상황 속에서 인식되는 그들의 삶은 보잘 것 없으나 친우들과의 시적 교류가 그들에게는 많은 위로가 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유배를 와서 만난 옛 동료나 친우들과의 주고받은 시에서 앞선 두 곳에서의 울분이나 체념의 정서와는 달리 서로 동질감을 느낄 수 있었으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조(自照)의 정서를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정서는 현실의 불만을 적극적으로 내면화하고 있다

IV. 결론

본 연구는 이행이 유배지에서 쓴 《謫居錄》, 《南遷錄》, 《海島錄》을 대상으로 하여 이행의 정서의 변화 양상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쓰여졌다. 이행은 3년에 걸친 유배 생활을 그 장소가 변함에 따라 이름을 달리하며 3개의 詩稿를 엮었다. 유배지에서 자신의 생활을 자세하게 시에 담은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은 시라기보다 유배체험의 현장에서 얻어지는 절절한 삶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장에서 현실을 바라보는 시적화자의 태도로 유배시의 정서를 유형화하여 정서층위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이행의 유배시를 분석한 결과 정서 표현은 自嘆→自慰→自照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김기림은 용재 시에 나타나는 정서 표출양상을 愛·憧憬·悲歎·絶望으로 나누고 대부분의 시들이 염세적이고 허무적인 성향을 띠고 있으며 비탄과 절망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고 보았다.²⁶⁾ 임형택은 이행의 시세계가 '패배의 식'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謫居錄》과 《南遷錄》 등 초창기에 나타나는 비탄과 절망하는 자탄(自嘆)의 정서는 《海島錄》에 가서는 스스로를 위안하는 자위(自慰)의 정서로 나타남으로 그 정도가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海島錄》에서의 유배 온 여러 인물들과 교류를 통하여 그가 느낀 좌절과 고독감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오히려 스스로를 되돌아 볼 기회를 찾은 듯 보인다. 그리하여 자조(自照)의 정서로 삼은 것이다. 이행은 자신의 내면에 관심을 가지고, 혼란한 현실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태도를 형성해 갔던 것이다. 현실의 갈등문제를 내면화한다는 것은 시적화자가 조화롭게 해결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뜻한다. 시적화자가 현실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26) 김기림, 「용재 이행의 한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86.

〈참고 문헌〉

- 『(국역) 연산군 일기』, 민족문화추진회, 1982.
- 『(국역) 中宗實錄』, 민족문화추진회, 1980.
- 『(국역)容齋集』, 민족문화추진회, 1999.
- 『德水李氏 第 23代孫 世系略譜』, 德水李氏 玄岩親睦會, 1984.
- 『容齋集』, 한국문집총간, 민족문화추진회.
- 김갑기, 『송강정철연구』, 이우출판사, 1985.
- 김달진, 『한국의 한시(1-3)』, 민음사, 1989.
- 김동문, 『韓·中 산수시 비교 연구 : 현실과 산수와의 관계 유형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 석사논문, 1998.
- 김동준, 『16세기 樓亭漢詩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4.
- 김미숙, 『李仁老의 <和歸去來辭>연구 : 陶潛의 영향을 중심으로』, 영남대 석사논문, 1990.
- 김보경, 『『全唐詩』所載 唐人贈新羅人詩 研究 : 羅末麗初 漢詩의 再照明을 위하여』, 이화여대 석사논문, 1992.
- 김석태, 『杜甫 詩에 나타난 사회의식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논문, 1997.
- 김연수, 『漢詩 風格 연구 : 허균의 ‘국조시산’ 批와 評에 근거하여』, 고려대 석사논문, 1997.
- 김은미, 『朝鮮初期 樓亭記의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1991.
- 김태수, 『秋史의 流配詩 研究』, 단국대 석사논문, 1992.
- 당현중, 『李白 詩와 杜甫 詩의 比較 研究』, 인하대 석사논문, 1999.
- 목정균, 『조선전기제도연론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85.
- 문승희, 『挹翠軒 朴闇의 漢詩考』, 원광대 석사논문, 1991.
- 박미정, 『동인지화 연구』, 세종대 석사논문, 1995.
- 박성규, 『이규보연구』, 계명대 출판부, 1982.
- 백연태, 『朝鮮初 館閣文人의 現實表現 樣相』, 충남대 석사논문, 1997.
- 변종현, 『高麗朝 漢詩의 唐宋詩 受容樣相과 韓國的 變用』, 연세대 박사논문, 1993.
- 사회과학원역사연구소, 『조선문화사』, 오월, 1988.

- 서백원, 「韓國 漢詩 韻律論 연구」, 충남대 석사논문, 1990.
- 성범중, 「韓國漢詩의 意境設定 方法과 樣相에 대한 연구 : 朝鮮時代 詩話集 所載詩를 資料로 하여」, 서울대 박사논문, 1993.
- 손찬식, 「朝鮮前期 丹學派의 詩文學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1990.
- 송만용, 「음취헌 박은의 詩文學」, 동국대 석사논문, 1999.
- 신연우, 『조선조사대부시조문학연구』, 박이정, 1997.
- 안동한문학회, 『한국한문학과 유교문화』, 아세아문화사, 1991.
- 우전신호열선생고회기념충간행위원회, 『우전신호열선생고회기념논총』, 창작과비평사, 1983.
- 유소감, 『장자철학』, 최진석 옮김, 소나무, 1990.
- 유약우, 『중국시학』, 이장우 역, 동화출판사, 1984.
- 유풍연, 『익재시연구』, 전주대 출판사, 1996.
- 유형표, 『왕안석 시가문학연구』, 범인문화사, 1993.
- 윤호진, 「抒情漢詩의 意味 表出 樣相에 관한 연구 : 意味表出樣相에 있어서 景物指向과 情感指向의 두 軸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박사논문, 1993.
- 윤호진, 『한시의 의미구조』, 범인문화사, 1996.
- 이동환, 『매제의 도학적 시세계』,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92.
- 이두희 외, 『한국인명자호사전』, 계명문화사, 1988.
- 이민홍, 『사람과문학의 연구』, 형설출판사, 1985.
- 이민홍, 『조선중기 시가의 이념과 미의식』, 성균관대 출판부, 1993.
- 이병욱, 「『東人詩話』 연구」, 인하대 석사논문, 1993.
- 이병주 외, 『한국의 한문학』(1-4), 민음사, 1987.
- 이병혁, 『고려 말 성리학, 수용기의 한시연구』, 제일문화사, 1988.
- 이병휴, 『조선전기 기호사림과 연구』, 일조각, 1984.
- 이선주, 「漢詩의 五言詩 독해 연구」, 동아대 석사논문, 1999.
- 이수건, 『영남사림과의 형성』, 영남대 출판부, 1979.
- 이우성·강만길 편, 『한국역사인식 上』, 창작과비평사, 1976.
- 이의철, 「漢詩批評에서의 風格 研究」, 경희대 석사논문, 1999.
- 이종건, 『면양정 송순 연구』, 개문사, 1983.
- 이종건, 『서거정시문학연구』, 개문사, 1985.

- 이종건, 『조선전기한시비평』, 새문사, 1994.
- 이종목, 『해동강서시과 연구』, 태학사, 1995.
- 이창희, 「容齊 李荇 漢詩의 研究」, 고려대 박사논문, 1998.
- 이태진, 『한국유교사회사론』, 지식산업사, 1989.
- 인권환, 『고려시대 불교시의 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89.
- 임두정, 「李荇의 古詩 연구 : 현실인식과 그 대응방식을 중심으로」, 강원대 석사논문, 1997.
- 전용숙, 「박은 漢詩 연구」, 세종대 석사논문, 1990.
- 정민규, 「읍취헌 朴闇의 漢詩 연구」, 성균관대 석사논문, 1991.
- 조영임, 「한국 漢詩의 風格 연구 : 諸 시화집에 나타난 주요 評語를 중심으로」, 충북대 석사논문, 1995.
- 황청모, 「朴闇詩 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논문, 1998.

〈Abstract〉

A Study on the Emotions Shown in Lee Haeng's Exilic Poetry

Kim, Eunj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identifying the poetic emotion shown in the poem made by Lee Haeng while exiling in Chungju, Haman province and Geoje Island.

The centralism of early Chosun period slowly collapsed during the middle age and the society was in chaotic situation with the four events of massacre of scholars. Hence, the some people who entered the government service accomplished their will or some were exiled by losing the political power. The exile is a sort of punishment which criminals were sentenced for rest of their lives instead of the death sentence, then these extreme experiences influence the exiles. The exilic life is the other aspect which cannot be missed for the politicians of those times with the political and rural life. Let's look at the poetic emotion and emotional changes shown in the poems by Lee Haeng during the exile.

Lee Haeng's exile was assigned to Chungju at first for 3 years then to Geoje Island through Haman province by involving in the Gapja massacre of scholars. As he moved the place of exile, he left manuscripts of poems with the tile of *Jeokgeorok*(《謫居錄》) in Chungju province, *Namcheonrok*(《南遷錄》) in Haman province and *Haedorok*(《海島錄》)

in Geoje Island. The criterion of classifying the types of emotions in exilic poetry is the attitude of poetic mind toward the reality. The method of describing the reality is changed depending on the exilic situation. The types of emotions can be described as the way how to express the conflicts against the reality and we can see how to solve the problem against the reality or internal conflict. The frustrated and the desperate emotion of self lamentation shown at the beginning of *Jeokgeorok*(《謫居錄》) changed into the positive emotion as comforting himself in *Namcheonrok*(《南遷錄》). This transformation seemed to somewhat solve the desperation and solitude through the friendship with the other exiles and rather to have the opportunity to look back himself in *Haedorok*(《海島錄》). Therefore, the direction of the poem attained the emotion of self enlightenment. Lee Haeng internally looked over himself and established the attitude of making more objective observation of his nature in the chaotic reality. The active internalization of dissatisfaction toward the reality shows poet himself solving the conflicts harmonically. This can be known as the process in which the writer or poet solves the problems of real world.

Keywords : exile, the exilic poetry, political life, rural life, *Yongjaejip*, *Jeokgeorok*, *Namcheonrok*, *Haedorok*, outcome of poetic mind, internal conflict, negative emotion, positive emotion

이 논문은 2011년 1월 14일에 투고되었으며, 2011년 2월 9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1년 2월 11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